



Hello, I'm Hyeon who began second year of Novitiate in March as a Campus Minister intern at Seton Hill.

I grew up as the middle child out of three in a liberal nuclear family with Dad who is daily news reporter and Mom who was school teacher. My childhood memory mainly involves the time spent with grownups, especially my parents, or aunts rather than my peer. I was curious about the things my parents enjoy: their hobbies, books or their conversations. Reading newspapers became important part of my routine as our Dad was subscribing many newspapers. I don't think I liked reading children's newspaper that much. I grew up

hearing of many great women with modern spirits, which might have affected what kind of person I wanted to be.

I got baptized in my 6<sup>th</sup> grade with my siblings after my mom converted to Catholicism. With multiple transfers of schools as consequences of parent's employment, I stopped going to Church during my adolescence.

I studied French literature and wanted to become a French Scholar. But I changed my mind when I was finishing up graduate school as I felt the need of working experience. Luckily I was able to work as a legislative aide for a Congressma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experience sparked my interest in social phenomenon such as prejudice and stereotype, which actually brought me to U.S. for study psychology. As my graduate study advanced, my study expanded to cultural and lifespan perspectives on social cognition, especially how self-concepts relate to our memory processes.



Although I loved the topics of my research, I sometimes felt dissatisfied with some methodical approach. That made me struggle with huge emptiness in my mind. I felt no way out of this darkness. I came back to the Church 25 years after I left.



With the time in the church, I grew appreciative of healing power of people around me. One day, God struck me with an intense feeling that God created me to live out LOVE not for intellectual achievement, putting a new heart in me. Several years after seeking the answer about "how" I can live out my renewed heart since then, I felt God rejoicing in me and with me, when I was encountering with the Sisters of Charity. The joy was so certain for me to fearlessly jump into the way of life that might seem uncertain to other. Inexhaustible is the grace that I have enjoyed since then. All the encounters keep awakening me into the mystery of God, deepening my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 Church, and Mission and growing my desire to be companion for someone who is helpless. PRAISE TO GOD!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시튼 힐에서 캠퍼스 사역 인터십을 시작으로 수련자 이년차를 시작한 이현연입니다. 저는 일간지 기자인 아빠와 학교 선생님이신 엄마를 둔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주로 어른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많은데 제 기억에 또래나 형제들보다는, 부모님들이나 이모들과 같이 노는 시간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일 때문에 집에 늘 여러 종류의 신문이 많아 어릴때부터 신문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고 어린이 신문보다는 어른 신문을 기웃대던 애늬은이 같은 면도 많았던 거 같아요. 똑똑하고 현대적인 삶을 살아냈던 여성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읽고 자란 것도 현재의 제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엄마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부모님들의 전근문제로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결국 사춘기때쯤에는 성당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문학을 좋아해 불문학자를 꿈꾸며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열망도 있어 진로를 바꿉니다. 국회에서 입법정책일을 보좌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알게 되고, 특히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에한 관심으로 미국까지 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관심 주제가 진화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상황이나 현상을 인식할 때 문화적인 요인이나 나이와 같은 생애발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자아개념 같은 개인적 동기상태와 기억의 관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재밌는 주제였지만 심리학의 기계적 방법론에 만족하지 못해 논문을 쓰면서 공부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져 하느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25년정도의 방향을 기다려주신 주님과 화해한 곳, 보스톤 한인가톨릭 공동체에서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쌓으며 공동체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느님을 알기 시작한 어느날, 주님이 저를, 지적 성취 보다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랑의 삶에 더 적합하게 만드신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동시에 제 심장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성령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 몇년동안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에 대해 기도하고 묻는 동안 사랑의 시튼 공동체를 만나면서 웃고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신비한 기억으로 생생한 이 만남은, 주님이 저랑 함께 하고 계시다는 희열에 찬 확신, 어떤 어려움도 굳건히 이겨낼 것 같은 두려움 없는 희망으로 사랑의 시튼의 수녀회로 입회하게 하였습니다. 입회 후에도 고갈되지 않는 기쁨과 믿음의 은총으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하며 세상의 가장 힘든 사람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하느님을 강하게 느끼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찬미합니다.

